

99년 한국불교계에 '새로움'을 화두로 제의코저 한다. 문명사의 최대전환기라 불리는 오늘날이 인류에게 새로운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한국불교계 현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당위를 보여주고 있다.

신년사설

'새로움'을 화두로 삼자

산업화 이전, 동서양 어디서나 종교적 엘리트는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풍요로운 물질과 생활의 편의만을 추구하기 시작한 산업화는 결정적으로 '종교'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제 이 산업화시대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미 시작된 정보화 시대는 다시 종교적 천재와 종교적 엘리트를 기다린다. 물질적 충족과 높아지는 과학기술의 세계는 그만큼 더 깊고 풍요로운 정신세계와의 균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불교도 원효스님 의상스님같은 종교적 천재들이 태어날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만민의 실천적 준비를 서두를 때다. 21세기라는 미지의 세계가 요구하는

불교는 단순한 복고(復古)가 아닐 것이다. 불교의 본래 모습이 살아 숨쉬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나는 불교, 낱마다의 새벽을 새롭게 장식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는 그런 불교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불교역사도 기존 형식과 교리의 무조건적 추종 아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용, 새로운 틀을 짜는 지혜로 그 맥을 이어오지 않았는가. '새로움'의 화두는 시대적 분위기, 시대상의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 사람들의 지식수준은 낱마다 새롭고 풍부해져 갔다. 이들을 절복(折伏)시킬 힘을 얻으려면 이들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대적 중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가의 지적수준 역시 높아져야 한다. 교화력 또한 여기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승가가 어찌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랴. 오늘날 한국불교 승단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까닭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삼보의 하나인 승가교육의 절실함이 여기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올바른 승단의 사회적 이미지가 개선이 급하다. 불교의 권위는 불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불교 승단에 사회적 권위란 없다. 수행집단이 지켜야 할 계율도 정규도 이미 무너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승단이 새로

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으며, 이 역시 승가교육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계율도 정규도 수행이나 포교 어느것 하나 교육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승단 교육체계는 오랜 전통으로 그 이름이 높다. 그러나 과연 그 틀이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걸맞는 것인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승단교육의 경제성은 동양전통에 따른 맹목적 권위의식과 인습적 관행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훈교학적인 방법론과 전근대성이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식이나 어느 한 교파적인 불법에 지나친 편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도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교단내에서 70년대부터 교육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지부진, 발빠른 대응을 보여준 적이 없다. 열의를 가지고 후회하려는 사찰 사암이나 신도도 드물다. 이제 불교의 전역량을 승가교육에 모아주어야 할 때다. 더이상 미룬다면 불교의 위상은 추락을 계속할밖에 없고 중생들에게 삶의 참의미를 깨우쳐 주는 본래의 역할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박제가 되어 버린 불교, 문화재로만 남게된 불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불교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석가세존의 수승한 가르침에 있다. 해방 이후 무시무종이라 불릴만큼, 아니 이제 민성이 된 승가의 분쟁속에서도 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아직

높은 정신세계를 넘어서 지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불법이 있음으로써다. '낱마다 새롭게'는 불법이 구태의연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결코 박제가 될 수 없는 생명 그것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미래를 담보할 종교적 천재를 불교가 배출할 것이라는 담원도 여기서 읽게 된다. 세존의 가르침인 불법이 있는 한 불교에 추락은 없고 절망도 없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다. 불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실제 인생에서 행으로 이를 보여줄 인물, 현대인에게 인격적 감화를 주며 중생을 능히 섭수(攝受)할 수 있는 새로운 스님, 승가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래서 불교는 문명전환기의 최대 문제인 인간정신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복합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인류문명 최대전환기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새로움'의 화두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

"종도들 질타 겸허히 수용 종단 본래자리 찾기 최선"

조계종 29대 총무원장 당선 고산스님



고산스님 1934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49년 법어사에서 태어나 49년 법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사미계·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등에서 18 하안거를 성단했으며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75년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사·은혜사주지를 역임하고 2차례 총무원장을 지냈다. 94년 이후 호계원장을 맡고있는 스님은 각백으로서 출신의 맥도 있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문중간의 이해나 그로 인한 갈등을 없애고 대화합의 기초위에서 종단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집행부의 당면과제란 것을 모든 종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화합의 정신은 통합과 발전의 실천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opia.com)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고산스님은 "종도들이 큰 소임을 맡겨 준 것은 이번 종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종단을 안정시켜 발전을 이룩하라는 뜻으로 안다"며 "국민과 종도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선에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 운영에 대한 생각을 털어 놓았다. -종단 사태의 수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이번 사태를 종단이 바로 서는 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뜻 있는 종도대중이 합심단결하고 종단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통일된 중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결이 작은 감을 벗어날 때 망망대해가 열리듯이 개인의 이익이나 문중, 파벌, 교구 차원의 소송적 안목을 버리고 종단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개혁의 과제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종단개혁 기초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종단이 중생을 제도하는 반야선이 되기 위해서 개혁과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용하기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29대 총무원장은 94년 개혁불사 이후 제기된 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오늘의 종단현실과 사회현실을 반영, 의식과 관행, 사람, 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중무의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는. ▲승려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수행정진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화개혁회의에 소속된 스님들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악은 악의 씨앗을 뿌리는 법입니다. 대화합의 정신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사회의 법이 있듯이 승가에도 승니법이 있습니다. 법에 기초하고 종단내 중진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스님이 당선된 것과 관련 종권이 한 쪽(문중)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공원공단,북한산 훼손 '사과'

관음상복원-재발방지책 마련 등 약속

북한산내 관세음보살상 훼손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대우)이 수습 및 재발방지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구랍 24일 "무속행위터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단직원의 소양부족으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전관련자 증진, 훼손된 관세음보살상 복원, 전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확산에 대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 사무소에 공원내 불상 및 각종 문화재 등 유물에 대한 보호 관리 철저와 각종 문화재 등 유물의 관리방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훼손사건이 발생했던 동부관리사무소는 구랍 30일 오후 4시 조면구 계장(성동구청 감사담당관실)을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총무원장 별도선출 추진

정화회의 2차 본회의

정화회의는 구랍 29일 서울양재동 구룡사에서 84명의 정화회의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헌중법과 정화개혁회의법 개정, 정화회의의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화회의는 종헌중법과 정화개혁회의법을 개정, 총무원장을 정화회의에서 선출해 중정이 임명토록 했다. 본사주지도 총무원장이 추천해 중정이 임명토록 했다. 정화회의는 또 재단법인인 선학원과 대각회의 특별교과화를 추진기로 했으며, 새 원로위원에 도성(전 대운사주지) 도은(대구 지장사) 도봉(동화사) 서주(통도사)스님을 추천했다. 본회의 이후 열린 '12·23 법

"29일 선거는 무효"

설조-대우스님 이의신청

설조스님(前 불국사주지)은 구랍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29일 치뤄진다면 이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지난해 11월 12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선거가 두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입후보등록을 다시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설조스님은 구랍 27일 대우스님은 28일 각각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1월중 시상

구랍 23일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업무에 복귀한 포교원은 종단사태로 연기됐던 포교대상 시상식, 포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1월중 실시키로 했다.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지침서 발간사업과 불자의식 조사업도 계속한다. 포교원은 구랍 30일 포교국장 성수스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포교원은 또 3회 포교사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응시 기회는 별도로 주지 않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 실시된 포교사교시에 조계사불교대학과 삼화불교대학 졸업자 1백여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포교사단도 6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서울·경기지역 포교사모임을 갖고 포교사단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종헌중법 특위위원장 정휴스님 선출

조계종 종헌중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구랍 26일 오전 11시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정휴스님을 선출하고 간사에 현응스님(종회의원)과 송수스님(총무원기획실장)을 선임했다.

현대만평 박구원



화합과 도약의 해!

佛紀 2543년 謹賀新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의장 19350
등록 28434
특허 48510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051) 466-3731~2 Fax: (051) 466-3733
귀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귀
■ 구입 및 대리점 문의 바랍니다 ■
현상공덕향은 의향이 원추형으로 금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분이 지나면 의향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의향과 견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제일 및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당향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